

도시 곳곳 관광거점 조성... 체류형 관광도시 도약

전주시가 북부권 호남제일문 일대를 복합스포츠타운과 문화광장, 복합리조트 등을 갖춘 전주의 대표 관광명소로 재창조하기로 한 것은 전주한옥마을 외에도 도시 곳곳에 다채로운 관광거점을 만들어서 체류형 관광도시로 나아가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를 위해 먼저 기존 전주월드컵경기장을 비롯해 야구장과 육상경기장, 실내체육관, 국제수영장 등 8개 체육시설을 한 곳으로 모아 1년 내내 사람들의 열기로 가득한 공간으로 만들 계획이다. 나아가 다채로운 행사와 축제가 열리는 문화광장과 복합리조트, 친수 여가 공간 가족 캠핑장 등을 하나둘씩 확충해서 사람이 머물고 돈이 모이는 곳으로 만들기로 했다.



◀ 우범기 전주시장이 30일 호남제일문 인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현장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열기로 가득한 8개 체육시설 '한 곳에'

호남제일문 복합스포츠타운 대표관광지 조성 계획은 크게 오는 2030년까지 추진되는 '스포츠시설 집적화 사업'과 이후 오는 2040년을 목표로 한 '스포츠 연계 관광 인프라 조성사업'의 두 가지로 나뉜다.

이 가운데 스포츠시설 집적화는 국비 402억 원 등 총 4348억 원을 투입해 이 일대에 기존 전주월드컵경기장을 비롯해 장애인체육복지센터, 드림스포츠센터, 전주실내체육관, 전주육상경기장, 전주야구장, 국제수영장 등의 각종 체육시설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는 향후 복합스포츠타운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집적화된 시설들을 활용해 각종 국제 대회와 전국 규모의 대회 유치에 힘쓰고, 체육 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며 관심을 불러 모을 지역 연구 프로그램을 유지하는 데도 공을 들일 계획이다.

동시에 시는 종목별 대표 선수들의 전지훈련 장소로 제공할 수 있도록 종목별 기초 훈련장과 체력증진센터를 마련하고, 주변 문화관광시설과 유원시설, 숙소를 연계한 선수촌형 원스톱 스포츠 패키지를 개발해 많은 선수와 체육 동호인들이 전주에서 훈련과 함께 관광까지 즐길 수 있는 종합 스포츠센터 기능을 제공하기로 했다.



호남제일문 복합스포츠타운 대표 관광지 조감도

전주월드컵경기장·전주실내체육관 등 8개 체육시설 집적화 호남제일문, 시민·관광객에게 매력적인 공간으로 재구성 지역경제 활성화 등 연계 '강한 경제 전주' 구현 새 동력 기대

▶ 전주 북부권, 사람이 머물고 경제가 꿈틀대는 곳으로

시는 각종 체육시설이 집적화되고 활성화되면 전주 북부권 일대가 많은 사람이 즐겨 찾는 곳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시는 호남제일문을 시민과 관광객이 인생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매력적인 공간으로 재구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호남제일문을 관통하는 기린대로를 지하화하고, 지난 1994년 시멘트로 재건된 호남제일문을 전동 양식으로 재축조해 전주를 상징하는 대표 건축물로 재탄생시키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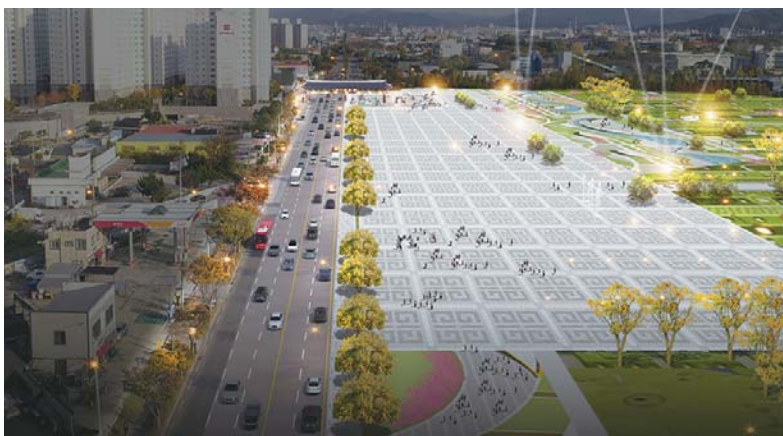
또한, 호남제일문과 맞닿은 월드컵경기장 동측에는 '빛의 광장'을 조성하고, 기존 주차장은 지하화함으로써 다양한 체류형 관광 인프라를 갖춘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복합스포츠타운 내 소중함 생태자이언트 조흔천 1.8km 구간을 활용해 물길을 따라 음식과 문화, 휴식이 가능한 친수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는 면밀한 검토를 거쳐 복합스포츠타운 중심부에 놓인 전주월드컵골프장의 이전을 추진하고, 이곳에 민간투자 유치를 통해 오는 2040년까지 복합리조트를 개발하는 등 관광객을 유인하고 일자리도 창출한다는 구상이다.



호남제일문 문화광장 조감도



호남제일문 복합스포츠타운 배치도

점으로 만드는 '덕진호수 수질 개선 및 덕진공원 관광지 육성사업'도 추진 중이다.

호남제일문 복합스포츠타운 대표관광지 조성 등 3개 사업을 통해 전주는 동서남북 어디서나 색다른 매력을 즐길 수 있는 관광도시를 꿈꾸고 있다.

곳곳에 다양한 매력을 가진 관광거점이 늘어나면 전주를 찾는 관광객의 체류시간이 길어지고, 숙박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산업의 성장으로 연결돼 강한 경제 전주를 구현하는 새로운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전주의 북부권은 산업화 시기 전주의 굴곡으로 전주 경제의 침체기였으며, 최초 청동기 시대부터 마을을 이뤘던 비옥한 곳으로 호남평야가 시작되는 '전주의 공간' 역할을 해왔다"며 "이곳에 2040년까지 호남제일문 복합스포츠타운 대표관광지를 조성해 전주가 스포츠산업 관광도시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옥기기자

▶ 인터뷰 - 우범기 시장

“호남제일문 위치 북부권, 기회의 땅으로”

“한옥마을에 국한되지 않도록 새로운 관광 인프라 갖춰야 체류·체험·먹거리 넘치는 대표 핵심 관광지구로 조성”

“호남제일성” 전주의 상징이자 관문인 호남제일문이 위치한 북부권을 전주 발전의 거점 공간이자 '기회의 땅'으로 꼭 만들겠습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지난해 전주한옥마을 방문객은 1,100만명이었으나 올해는 지난 8월에 이미 1,000만명을 넘어섰고 있다”면서 “전주를 찾는 관광객에게 충분한 만족감을 선사하고, 새로운 관광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전주한옥마을에 국한되지 않도록 새로운 관광 인프라를 갖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우 시장은 올해 동부권의 아중호수와 중부권의 덕진공원을 매력적인 관광지이자 관광객이 오래 머무는 체류형 관광지로 개발하는 내용의 대규모 프로젝트를 제시한 바 있다.

여기에 전주 북부권도 호남제일문과 전주월드컵경기장 일원 복합스포츠타운을 중심으로 새로운 대표 관광지를 만들겠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끝으로 우 시장은 “호남제일문 일대를 건강과 젊음이 가득한 곳, 관광객들이 더 많은 돈을 쓰는 체류형 관광지, 많은 선수와 동호인들이 훈련과 관광을 즐길 수 있는 장소로 만들겠다”면서 “이와 더불어 체류와 체험, 먹거리를 넘쳐 나는 대표 핵심 관광지구로 조성하고, 적극적인 민간투자 유치를 통해 일자리와 관광객 유치 효과를 배가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